

올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 편집: 본당 편집회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2024년 5월 26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 28,16-20)



The Most Holy Trinity, 출처: 마리아사랑넷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되게 하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연중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 17)

39

Maestoso 정인상

1. 성 - 부 여이사람들 이 아 버 지의뜻을따
 2. 성 - 부 여내게말기 신 이 사 람을지키시
 3. 성 - 부 여사람들에 게 아 버 지를증거하

라 진 리 위 해 몸 바 치 는 사
 고 나 당 신 과 하 나 이 듯 이
 며 당 신 나 를 사 랑 하 고 내

람 이 되 게 하 소 서 성 부 나 를 이 -
 사 람 들 도 모 두 가 하 나 되 게 하 -
 안 에 항 상 계 시 듯 내 생 명 을 다 -

세 상 에 보 내 심 과 같 - 이 나 도
 읊 소 서 아 버 지 말 씀 - 은 모 두
 바 쳐 서 사 랑 하 오 리 - 니 모 두

사 도 들 을 - 세 상 에 파 견 하 읊 니 다
 진 리 이 며 - 생 명 의 말 씀 이 읊 니 다
 아 버 지 의 - 사 랑 을 알 게 하 읊 소 서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주 하느님의 위대함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신명 4,32-34. 39-40)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32 “이제,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의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 33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34 아니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39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 두어라. 40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마태 28,16-20)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루카 24, 45), 이 말씀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성경과 신부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 듣기를 바랍니다. [AA2]
-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루카 24, 48) 말씀으로 기도하며, 증인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의 증인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AA2]
-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루카 24, 45)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위에 수십 년을 냉담하던 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와 말씀에 심취하여 선행하는 모습을 볼 때 성령의 인도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의 값진 삶이 되고 심신을 건강하게 함을 알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CT]
- “바로 나다.” (루카 24, 39)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탈출 3, 14)라고 당신 존재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나다.”라는 신적 존재를 알리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NV1]
-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루카 24, 41) 말씀을 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는 모습이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NV1]
- “평화” (루카 24, 36), 평화라는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 짐을 느낍니다. 평화는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V2]
- “평화가 너희와 함께” (루카 24, 45) 말씀을 기도하며,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바쁜 가운데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을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돌아오신 후에도 복수나 응징이 아니라 평화를 빌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깨끗해짐을 느낍니다. 믿음의 성장은 나 혼자 기도하고 매일 미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평화를 얻음으로 가능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V2]
-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루카 24, 39) 말씀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상처를 모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는가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드러낸다면 상처를 통해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RC2]
- “마음을 여시어” (루카 24, 45) 말씀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연다는 것이 귀를 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족,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와 마음을 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RC2]

- “다시 살아야 한다.” (루카 24, 46) 말씀으로 기도하며, 힘들어 힘들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난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힘들어 고통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희망을 바라고, 희망이 없어도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인것 같습니다. [RC2]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 '삼위일체'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삼위일체

1

Paullo Roberto

성 - 부 와 - 성 - 자 와 -
 성령의 이름으로 아 - - - 멘 -
 주 님 께 찬 - 미 와 감 사 와 경 배
 를 드 리 러 - 여 기 왔 나 이 다 -
 주 님 께 찬 - 미 와 감 사 와 경 배
 를 드 리 러 - 왔 나 이 다 -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성월에 관한 모든 것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는 5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침묵과 기도, 순명과 충실로 살아온 성모 마리아의 신앙적 모범을 따르기 위해 성모성월을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5월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성모 성월에 관해 알아봅니다.

■ 교회의 성모 신심

하느님 아들을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는 순간 자리를 지켰던 성모 마리아. 이후 사도들과 기도하며 교회의 시작을 함께한 성모 마리아는 교회 안에서 전구자이자 영적인 어머니로 받아들여져 왔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교부시대 (Father of the Church, 1세기 말부터 7-8세기까지) 때부터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 431년 에페소 공의회-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었으며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선언
- 16세기 종교개혁 - 성모 마리아 공경에 대한 문제가 검토, 성모 신심이 장려되는 계기가 됨
- 1568년 - 성 비오 5세 교황이 성무일도에 성모송 삽입
- 1569년 - 목주의 기도를 표준화해 보급

16세기 후반에 들어 강화된 성모 신심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가톨릭교회의 특징적인 신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 발현이 이뤄진 이후 성모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됩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파티마 성모 발현 25주년을 맞아 전 세계를 성모 성심에게 봉헌하고, 1944년 성모 성심을 기념하는 축일을 8월 22일로 고정시키고 서방 전례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 축일을 지키도록 규정합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인격에 대한 공경, 덕행에 대한 공경,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온전히 동참하는 성모 마리아의 역할에 대한 공경입니다. 교회가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 순명한 신앙의 모범을 신자들이 따르도록 권하고자 함입니다.

■ 한국 교회의 성모 신심은 어떻게 시작됐나.

16세기 후반 유럽에서 성행했던 성모 신심은 17세기에 유럽 선교사에 의해 중국 교회에 전파가 되고, 18세기에 이르러 조선으로 전해집니다.

조선대목구 제2대 교구장인 앵베르 주교는 조선교회의 새로운 주보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모시고자 했고 1841년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의 인가를 받게됩니다. 이후 1846년 11월 2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무염 성모 성심회’가 설립되면서 한국 신자들의 성모 신심 운동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이 단체를 통해 신자들은 정기적으로 기도문을 바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각 본당에 남아있는 성모회의 요체가 바로 이 단체였다고 합니다. .

성모 신심 운동 및 사도직 활동도 1950년경에 이르러 활발하게 전파되는데, 1953년 ‘푸른군대’가 미국인 군종신부 마태오 제이 스트롬스키 신부에 의해 한국에 소개되었고, 같은 해 목포 산정동성당에서 ‘레지오 마리아’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이 두 단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힘들고 고된 현실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며 성모마리아의 은총을 간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성모 성월, 어떻게 시작됐나

동방교회로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비잔틴 전례에서는 13세기부터 8월을 성모 성월로 지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성모승천’ 대축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의 잠드심’ 축일(8월 15일)을 지내면서 이 축일을 더욱 뜻 깊게 경축하고자 축일 전 15일은 단식을 하면서 축일을 지내고 축일 후 15일을 축제일로 지냈다고 합니다.

한편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에서는 5월을 마리아의 달로 지내는 관습이 13세기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13세기 말 스페인 카스티야 왕 알폰소 10세는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과 성모 마리아를 통해 얻는 영적 풍요로움을 연결시켜 5월을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달로 지낼 것을 권했고, 17세기 말 이탈리아 피렌체 부근에서는 5월을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는 성모 신심 단체가 생겼으며, 나폴리 지역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성모님께 찬미가를 바치고 성체강복을 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후 1854년 비오 9세 교황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선포한 후에 공식적으로 성모 성월 행사가 거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가 전례력 안에서 5월을 성모 성월로 공식 확정한 것은 1921년입니다. 그해 베네딕토 15세(재위 1914~1922)는 성모 마리아를 「모든 은총의 중개자」로 선포하면서 5월을 성모 성월로 공식 인준합니다. 비오 12세 교황(재위 1939~1958)도 거룩한 전례에 관한 회칙 「하느님의 중개자」(Mediator Dei)에서 “성모 성월 신심은 엄밀히 말해 전례에 속하진 않지만 특별한 중요성과 가치를 지닌 신심 행위 가운데 하나이며 어떤 의미에서 전례적 예배 행위로 간주할 만한 신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성모 성월, 어떻게 보내야 할까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성모 마리아의 신앙고백은 신앙에 대한 믿음과 겸손의 자세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통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과 겸손의 자세를 보인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참된 성모 신심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일에 있으며 성모 성월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재위 1963~1978)도 회칙 「평화 보존을 위해 5월에 바치는 기도」(Mense Maio)에서 성모 성월 신심을 평화를 위한 기도 행위로 실천하도록 권고하면서 “성모 성월은 기쁨과 위로의 달이며 이 신심을 통해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고 그리스도교 백성은 영적 예물로 풍부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또한 “마리아 신심 운동이 기적이나 발현에 치우치지 말고 전례적인 공경 안에서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재위 2005~2013)은 성모 성월에 평화와 화해를 선사하는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권고하면서 “묵주기도는 향수 어린 구시대의 엄격한 기도가 아니라 ‘새로운 봄’을 체험케 하는 가장 감동적인 사랑의 표현 중 하나”라며 “묵주기도는 매일 다시 살아남을 만끽하는 기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매일 체험할 수 있는 심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성모 성월을 정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성모 마리아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고 성모 마리아의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5월,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선행과 기도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2020-05-10일자 가톨릭신문 민경화 기자의 기사에서 발췌



2024 4월 성경통독 월례모임 탈출기 말씀과 함께



탈출기 21-40장을 읽고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된 히브리인들이 자유를 주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말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당시 초기 신앙, 믿음은 곧 생과 사의 선택에서 결정되었을 것이고, 먹고사는 고통 중에 기쁨을 찾고자 하는 환락의 길도 몹시 가까웠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온갖 핍박 속에서 종살이를 하던 곳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은 초기 교회의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장 굳건하게 형성되어 후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 또한 가장 척박하고 어려움이 가득했던 그때에 나의 하느님을 온 마음으로 부르고 찾았던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부르고 눈물 흘렸던 그때 참으로 대답이 없으셨던, 더디셨던 나의 주님께 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언제나 하느님께서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 글 | 강명선 루시아

나의 삶 안에서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굳어 있었던 신앙이 그저 아무 감동도 없다고 느껴지고 방황했던 대학생 시절, 나의 교만은 하느님께 의지하는 마음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나를 봉헌하겠다고 순수하게 키워 왔던 마음을 뒤로 한 채 주님께 거의 통보식으로 질문했습니다. ‘하느님께 저를 봉헌할 수 없을 것 같지요?’ 그리고 신앙은 우선 뒷전으로 미뤄 놓았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서도 나의 신앙은 뒷전인 채 익숙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려고만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신앙이 갈급함으로 다가와 간절함이 되었습니다. 2006년 1월 어느 날, 성당 웹사이트를 찾다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다락방 미사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둘째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성당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미사 전례의 모든 과정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계시는 시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교가 없으셨던 아버님께서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되었구나. 아버님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여기 작은 시댁에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성당에 다닐 수가 있겠구나’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들쳐업고 몰래몰래 새벽 미사를 다녔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나의 모습이 탐탁지 않으셨던 작은덕 어르신들께서 우리 아버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아이들 데리고 성당에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주임 신부님께서 우리 성당을 떠나시던 날 마지막 미사 때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는 마음이 절절해졌습니다. 그러고도 꼭 내가 하느님께 의지하는 마음보다 금송아지 같은 다른 곳에 내 마음을 의지할 때마다 나의 잘못됨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바래왔던 것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내 삶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분께 온전한 신뢰를 둘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나는 가끔, 아니 자주 내마음 속에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 글 | 김윤주 로사

탈출기 34장 29-30절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의 살갓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의 살갓이 빛나고 있었다.”**

흔히 사랑에 빠지면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인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묻게 됩니다. 사랑하고 있냐고... 사랑받고 있냐고... 표정과 몸짓을 통해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오롯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온 모세에게서 살갓이 빛났다는 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민족을 구해내고자 했던 사랑의 마음이,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따르려 했던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모세를 빛나게 했고 그래서 마침내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도 하느님께 사랑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누굴 사랑하고 있냐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냐고... 내 환한 얼굴에 물어봐 주기를 바라봅니다. — 글 | 황영심 유스티나

탈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분을 구원자로 섬기게 되었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고난도 겪고 고통도 당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분노도 느끼면서 우리의 처지를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하느님이심을 알고 그분과 함께 머물며 그분을 섬기면서 고통을 헤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탈출기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탈출기 40장 36-37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구름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안테나가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탈출기 27장 20절에서 주님께서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등잔에 쓸 기름, 곧 올리브를 찼어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라.”**라고 하십니다. 순수한 기름은 어떤 것일까요? 타국에서 성당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순수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봉사 활동이나 단체 모임을 할 때도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뭔가 계산된 입장이 되곤 합니다. 기름이란 빛을 내기 위해서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탈출기를 통해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 글 | 박소연 세실리아